

국내 100개 섬의 생물다양성 5년간 기록, 자료집으로 정리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100개 유인도 생물다양성 조사해 1만 4,000여 종 규명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관장 박진영)은 지난 5년간 (2021년~2025년) 국내 100개 섬의 생물다양성을 조사하여 분석한 현황 정리 자료집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섬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2021년부터 매년 20개 유인도를 선정하여 △동물(곤충류, 척추동물류, 무척추동물류), △식물(선태식물류, 양치식물류, 나자식물류, 피자식물류), △미생물(균류, 원핵생물, 원생생물) 등의 분류군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섬 지역 생물다양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했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고유종의 서식 여부를 확인하며 섬 생물다양성 장기 조사 기반을 구축했다.

5년간 섬 생물다양성 조사를 통해 총 1만 4,074종(동물 6,724종, 식물 3,142종, 미생물 4,208종)을 확인했다. 이는 국가생물종목록 6만 1,230종*의 약 23%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섬 자생종목록 2만 2,084종의 약 63%에 해당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04종과 고유종 238종의 서식이 확인됐으며,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신종·미기록종 234종을 확보해 국가 생물다양성 증진과 보전 전략 수립의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

* 국가생물종목록 2024년 기준 6만 1,230종으로 집계(국립생물자원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많이 서식하는 섬은 △흑산도(44종), △소청도(37종), △백령도(36종) 순이며, 고유종이 풍부한 섬은 △울릉도(75종), △남해도(66종), △진도(47종)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내 100개 섬의 생물다양성 정보를 비교·분석하여 섬별 생물다양성 수준과 특성 차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100섬’ 자료집으로 정리해 1월 2일 기관 누리집(hnibr.re.kr)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진영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은 “섬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공간이자 기후변화 영향을 가장 먼저 겪는 지역”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가 기후 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정책 연구의 중요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우리나라 100섬 생물다양성 조사 결과 요약.
2. 섬별 생물종 현황 분석 요약.
3.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100섬’ 자료집 구성. 끝.

담당 부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동물자원연구부	책임자	부장	노승진	(061-288-7906)
		담당자	전임연구원	민범식	(061-288-7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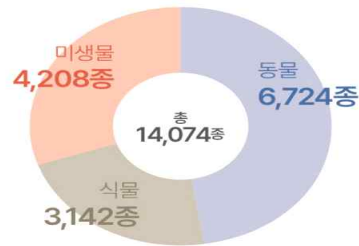
우리나라 100섬의 생물다양성



100섬의 생물다양성

우리나라 섬 생물다양성

100개의 유인섬을 대상으로 구축
동물·식물·미생물의 생물다양성 현황
멸종위기 야생생물, 고유종의 분포 현황



100섬의 주요종

멸종위기 야생동물 104종

고유종 238종

국가생물종목록

우리나라 섬 자생종목록



총 출현종이 가장 많은 섬 TOP 5

1위	진도		3,526종
2위	울릉도		2,754종
3위	남해도		2,480종
4위	백령도		2,267종
5위	완도		2,238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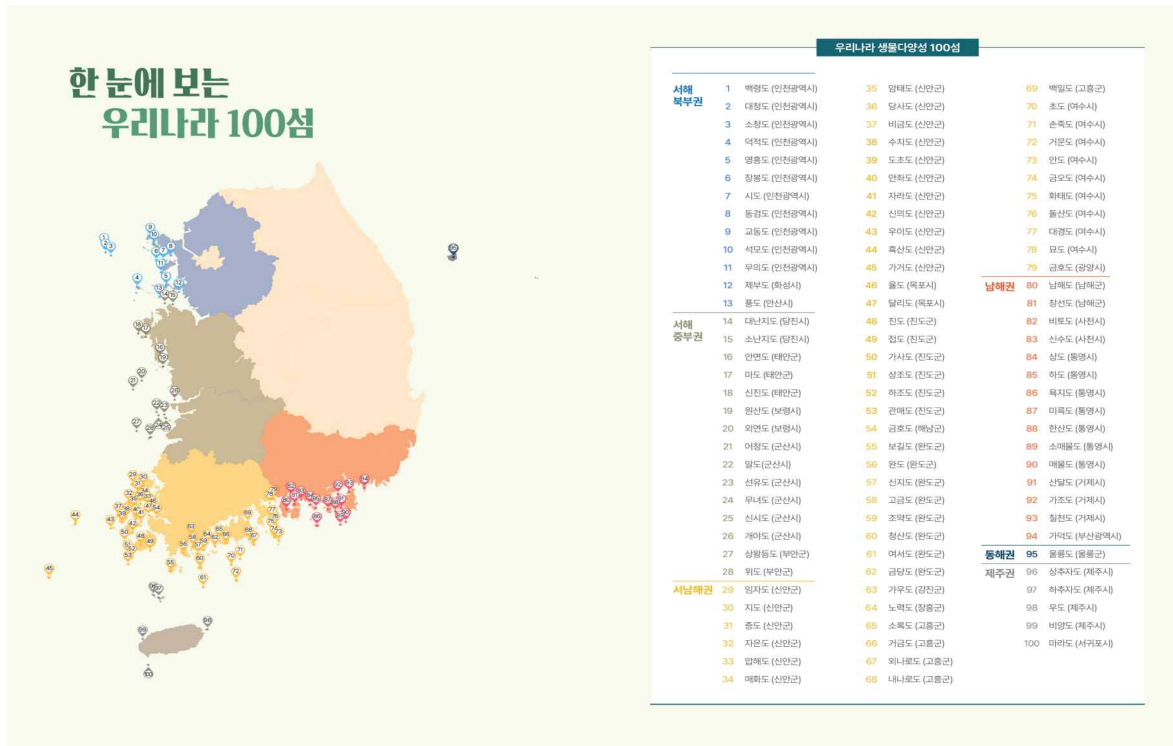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많은 섬 TOP 5

1위	흑산도		44종
2위	소청도		37종
3위	백령도		36종
4위	대청도		32종
5위	가거도		25종

고유종이 많은 섬 TOP 5

1위	울릉도		75종
2위	남해도		66종
3위	진도		47종
4위	완도		33종
5위	가거도		33종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100섬」 자료집 구성



조사 대상지 분포 및 목록 현황



마라도 이야기

아마도는 대한민국의 최남단에 위치한 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옹골읍(洞)에 남쪽으로 약 1km 떨어져 있다. 섬 이름 '아열섬'은 '아열'이 한자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阿熱島). 섬의 최고 지점은 천황봉(天皇峰)에 알려져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것이 마라도에 있는 천황봉을 가리키는 것일지도 모른다. 면적은 0.04km²로, 길이는 400m, 폭은 300m에, 마라도는 바다 속 독립 산호 화산섬이어서 어항은 없으므로 주정촌이다. 북쪽 등에 부근이 높고 중심부에는 작은 구릉이 있다. 전체적으로 면적이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돌출부를 제외한 해안은 완포설(灣)로 구성되어 있다. 북서, 북동, 남서, 남동은 높이 10m 정도의 돌출부가 발달했다.



송악산향에서 약 30분 소요

송은형 회사 : (주)마라도여객선

① 운행 시간 : 09:20 ~ 15:00 (약 30분 간격 운행)

※ 추밀과 상수거리는 종편하는 경우가 있으며, 계절과 날씨 상황에 따라 문장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니 여객선 운항 상황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240 우리나라 생활다양성 100선

마라도에서 확인된 생물

[illegible]

20 설 이야기 - 설 생불 이야기 | 마라도 241

주요 내용(섬별 멸종위기 야생생물, 고유종 현황, 섬 생물 이야기 등)